

# ‘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

### 친환경·스마트 설비 도입... 힐링·휴양 공간으로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형 산림문화·휴양공간 확충을 위한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이 18일 개장식을 갖고,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개장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강인준 군산시장,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나기학 전라북도의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개장한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지난 2007년 신시도자연휴양림 신규지정 고시 후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 지난 2018년부터 3년의 공사 끝에 결실을 맺었다.

총 120ha의 면적에 방문자안내센터 등 편의시설과 숲속의집 28동,

산림문화휴양관 2동 등 총 56개 객실의 숙박시설을 비롯해 해안탐방로, 전망대를 비롯한 다양한 휴양시설을 설치해 고군산군도의 명물로 탄생했다.

특히, 이번 신시도자연휴양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물 공사 시 친환경 공법 시행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설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천연 그대로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물과 마음이 힐링되고 치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또한, 숙박 및 탐방을 통해 바다와 산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양과 휴식을 제공하는 등 국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섬과 바다가 어진 해양형 휴양림은 산림에 위치한 대부분의 휴양림과 차별화되는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으로 그동안 관광객이 고군산군도와 새만금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아쉬웠지만, 앞으로 머무는 관광·휴양명소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산하를 더 많은 분이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4월 23일까지 주소지시·군서

전북도가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우수 농업인을 선발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고,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는 2021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2016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에 대해서는 시·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전문검증기관(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 후 5월 말 최종 확정한다.

사업 대상자는 시·도 및 시·군별로 배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점수 순위에 따라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 전국적으로 300명이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시설자금, 기타 자금 등 최대 2억원까지 연리 1%의 정책자금(융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 외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경영교육 및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대인 62명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해 총 121억원의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등 미래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정부 사업과의 별도로, 농정협의체인 삼각농정 회의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책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만 40~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매

년 50명을 선발, 2년간 월 80만원의 영농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 청년후계농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융자) 이자 2% 중 1%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영농기반 임차비를 연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이 겪는 소외감, 고립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간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65개 동아리에 연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는 경우 정책자금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전북도 미래 농업을 책임지고 선도할 우수 후계농업경영인들이 기한 내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광역형 먹거리 종합계획 초안 마련

### 푸드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용역추진 경과보고·추진전략·과제 설정 등 논의

전북도는 도내 지역 여건에 맞는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도 광역형 푸드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민관거버넌스 위원, 도의원, 농업인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용역추진 경과보고와 추진전략 및 과제 설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각 부문별 세부과제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해 6월 착수한 이번 연구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총 12개월간 지역과 트너(대표 장천섭)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전북 광역형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초안은 전북도 차원의 지원-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푸드플랜 민관거버넌스’ 분과(먹거리기획분과, 먹거리리실행분과, 공동체분과)를 통한 16회의 심층 토론회와 중점 추진 과제 논의를 위한 포럼 및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비전으로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으로 도·농이 함께하는 건



전북도는 도내 지역 여건에 맞는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도 광역형 푸드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18일 개최했다.

강하고 행복한 전북’을 제시하고, 3대 목표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중소농 소득, 일자리 창출 ▲지역활력 제고를 설정했다.

또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4대 추진전략 12개 과제를 설정, 각 과제별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제시된 주요 전략은 ▲지역농산물 공급강화, 공공형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먹거리 안전성 관리체계 마련, ▲식농교육 강화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북 먹거리에 대한 생산·소비실태에 대한 조사와 비전·목표 등을 검토해 도와 시·군의 역할이 중복되지

나 유기적이지 못한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광역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 도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푸드플랜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검토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전북형 푸드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순환체계를 구축해 중소농의 판로확대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 생생마을 살아가기’ 신규 사업 추진

전북도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며 주민들과의 교류 기회를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북 생생마을 살아가기’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약 71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자에게는 1개월에서 최장 6개월의 주거(농촌체험마을 숙소, 귀농인의 집 등)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월 30만원의 연수비가 지원된다.

도는 ‘전북 생생마을 살아가기’의 주요 고객을 청년 구직자, 40대 이

희망자 및 5000 은퇴 예정자로 설정하고, 시·군 및 운영자와 협력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생마을 살아가기는 귀농형과 귀촌형, 마을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부여하는 프로젝트 참여형 3가지로 나뉜다.

‘귀농형’은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귀촌형’은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이들 참가자에게 인근 지역의

농업 관련 일자리(수당 지급)를 주 2회 정도 제공해 실제 지역 일자리 탐색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구직자가 주요 대상인 ‘프로젝트참여형’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해 청년들이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마을주인이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이 새로운 주민을 맞이하고 상호 이해를 넓혀가는 기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 도 특별사법경찰팀,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이 도내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5주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기준 적정 여부,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 불이행 여부, ▲기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준수사항 등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1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1년 제1차 전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며,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주요내용은 ▲북한정세 및 신안보위협, ▲2020년 안보상황 평가 및 2021년 대비방향, ▲완벽한 해상작전태세 확립에 대한 보고 등이다.

또, 현재 가장 큰 위협요인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에서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익산시가 전북도지사 기관표창을, 35사단 이재진 군부사무관을 비롯한 20여 명이 통합방위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테러,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의 위협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혼연일체가 돼 위기상황 관리와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